日, 불단 속 1만기 오륜탑 발견

중세 민간신앙의 중요자료로 판명, 특별공개 예정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진언종 총본산이자 세계문화유산인 고야산(高野山)에서 1만 수천 기의 목조 오륜탑(五輪塔)이 발견됐다. 일본의 '산케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 등 주요 현지 언론들은 7월 1일자로 이 소식을 특별 보도했다.

고야산문화재보존위원회는 7월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야산 산내사찰인 엔츠지(圓通寺)에서 에도시대에 납입된 목조 오륜탑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10일, 엔츠지의 대중스님들이 본당의 수미단 밑에서 16개의 대형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모두 봉인돼 있었고, 이 중 봉인되지 않은 상자와 뚜껑이 파손된 상자 2개를 개봉해 총 752기의 목조 오륜탑을 발견했다"고 발견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오륜탑은 오대(五大)를 상징하는 다섯 도형을 모아 만든 불탑으로, 밀교에서 중요시되는 불탑양식이다.

발견된 오륜탑들은 대부분 동일한 크기로 높이 약 9㎝, 폭 3㎝의 크기다. 표면에는 각각 오대를 상징하는 범자가 쓰여 있다. 일부 탑은 미완성, 혹은 범자가 쓰이지 않은 형태로 발견됐다. 탑의 저부에는 복장용 구멍을 주변으로 '8만4천탑' 이라는 문장, 혹은 보시자의 것으로 보이는 이름들이 쓰여 있다. 복장으로는 연기법송(緣起法頌)의 사구게를 사경한 종이가 나왔다.

탑들이 보관돼 있던 상자들은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올라오는 높이로, 이 중엔 상자를 봉인한 날짜, 혹은 내부 탑의 개수를 밝힌 묵서들이 남아있는 것도 있다. 이를 어림잡아 볼 때 미개봉분의 상자까지 모두 더하면 1만 수천 기, 혹은

고야산 산내사찰 엔츠지서
에도시대 납입된 탑 추정
신앙적 폭넓은 유대 결과

수만 기의 탑이 조성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묵서를 통해 가장 마지막에 봉인된 상자는 1836년인 것으로 밝혀졌다.

고야산의 유물을 보존, 연구하는 박물관 '고야산 영보관' 측은 이 발견에 대해 "이 탑들은 옛 인도의 아쇼카 대왕이 불사리를 모신 8만4천기의 탑을 세웠다는 전설에서 기인한 조탑신앙의 하나인 팔만사천보탑(八万四千□塔)"이라고 발표했다.


기자들에게 오륜탑에 대해서 설명하는 소에다 류쇼 진언종 종무총장. 사진출처=산케이신문

영보관 측은 또 오륜탑들의 목질과 조각방식, 탑 표면에 남은 범자들로 추측해 "탑들은 모두 고야산 내에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슷한 조탑신앙이 있었던 나라의 토다이지(東大寺)를 중흥한 고승 쵸겐(重源)은 오륜탑들이 발견된 엔츠지의 중흥조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두 사찰간의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영보관 측은 이어 탑에 남은 기록들과 발원문 등을 통해 "고야산에서 전국으로 유행수행을 하는 유행승, '고야히지리(高野聖)' 들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의 일환으로, 보시를 받는 대가로 고야산에 탑을 모시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이를 통해 영보관은 "전국 각지를 유행했던 고야히지리들과 당시 서민들 간의 신앙적인 폭넓은 유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라고 전했다. 또한 "그간 명확하지 않았던 고야히지리들의 포교실태에 대한 실마리로, 망자의 사후에 대한 민간신앙과 고야산의 연계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민속자료"로 더욱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발견된 탑들은 보존처리를 거쳐 오는 20일부터 10월 6일까지 고야산 영보관에서 특별 공개된다.

복원 첫 발 뗀 아프간 고대 불상들

아프간 국립박물관, 2500여 점 불상 복원 나서

고대 간다라 미술의 중심지였던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집권과 내전으로 파괴된 2,500여 점의 불상 복원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7월 2일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 시카고대학과 함께 불상을 복원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의 현황을 보도했다.

복원 중인 불상들은 1930년대와 1970년대, 동부 아프가니스탄에서 발굴된 핫다(Hadda) 컬렉션이다. 약 2,500점을 넘기는 고대 불상들은 대부분 석회에 모래를 섞어 굳히는 스투코(Stucco)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일부 석조 불상들이 포함돼있다. 핫다 컬렉션은 아프간에서 발견된 가장 풍성한 불상유물로 손꼽힌다.

아프가니스탄 국립박물관 모함하드 파힘 라흐미 관장은 "탈레반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불교유물들을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파괴했다. 국립박물관에 소장 중이던 불상들은 2001년 1월 탈레반의 공격으로 파괴됐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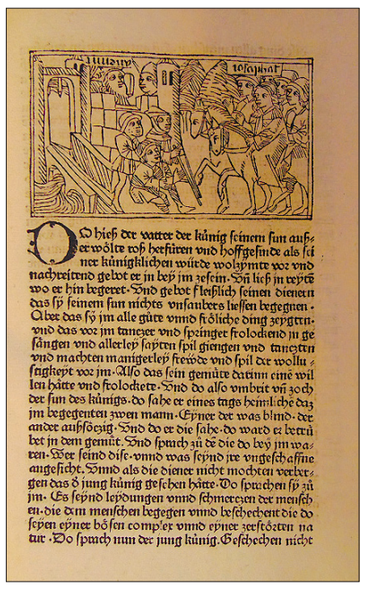
파괴된 불상들을 폐기하라는 명령에도 박물관 직원들은 불상파편들을 박물관 지하실로 옮겨 보관했다. 그러나 약 7,000개로 산산 조각난 불상들을 복원하는 일은 오랫동안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2016년 미 국무부의 재정지원과 시카고대학 동양학연구소의 인적 지원이 결정되고서야 작업이 시작됐다. 미 국무부는 2020년까지 핫다 컬렉션 복원을 위해 78만5000달러(한화 약 9억2000만원)를 지원했다.

동양학연구소장 파비오 콜롬보 박사는 "파괴된 불상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라며 복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불상 복원들을 위해 복원팀은 파괴된 각 조각을 전산화 한 후 신체부위나 색상, 디자인별로 분류한 뒤 조립에 나서고 있다. 다만 전체 작업량이 방대한 탓에 작업이 더뎌지고 있다. 박물관 측은 "현재 완전히 복원된 불상은 한 구이며, 10구의 불상은 거의 완료 단계"라고 작업현황을 밝혔다. 조우인 객원기자


복원 중인 불상들을 보고 있는 콜롬보 연구소장. 사진출처=워싱턴포스트

가톨릭 성인 '요사팟'은 석가모니?


15세기경 독일에서 제작된 〈성 요사팟과 바를라암〉 판본. 삽화는 부왕을 교화하기 위해 왕궁으로 돌아오는 성 요사팟과 제자들. 사진출처=스크롤 인디아

'성 요사팟과 바를라암'
부처님 생애 번안된 것
대영도서관 연구원 강조
"보살 요사팟으로 변화"

불교가 서양에 본격적으로 전해진 것은 근대의 일이다. 그러나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가 번안돼 중세에 전해졌다는 연구가 주목받고 있다. 7월 4일 인도의 인터넷 매체 '스크롤 인디아'는 대영도서관 제이나 이그뉴마 연구원의 칼럼을 소개했다.

서양과 불교의 첫 접점의 증거로 꼽히는 것은 2세기경 쿠샨제국의 금화다. 불교를 믿었던 쿠샨의 황제 카니쉬카는 부처님을 금화에 새기고, 당시 국제 공용어였던 그리스어로 "부처님을 위하여"라는 글귀를 넣었다. 제이나 연구원은 위의 예시를 전하면서 "그러나 가장 흥미로운 것은 중세유럽에서 부처님의 생애가 기독교적인 내용으로 번안돼 전해졌으며, 큰 인기를 끈 끝에 '성인'으로 추앙돼 교회에서 기념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님이 성인으로 등장하는 〈성 요사팟과 바를라암〉 이야기는 중세유럽에서 가장 인기를 끌었던 이야기중 하나다. 제이나 연구원은 "지금까지 발견된 판본으로만 최소 14개 언어로 번역됐다"고 밝혔다. 가장 오래된 판본은 10세기경 그리스어로 번역된 것이다.

그리스어판 〈성 요사팟과 바를라암〉 이야기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 요사팟이라는 성인으로 각색되어 등장한다. 요사팟(Josaphat)이라는 이름도 원래는 부처를 이루기 전의 싯다르타 태자를 이르는 보살(bodhisattva)이 페르시아어로 '보디사프(bodhisaf)'로 바뀌고, 다시 음가가 '유자사프(yuzasaf)'로 변하면서 이것이 그리스어와 라틴어화 되면서 "요사팟(Iosaphat)"이 됐다.

기독교화 된 이야기 속에서, 성 요사팟은 인도의 왕자로 태어났고 한 점성가가 왕자가 왕궁을 떠나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왕은 왕자를 즐거움이 가득한 궁전에 가두어 두었지만, 궁전 밖으로 나들이를 나갔다가 병자와 노인, 시신을 보고선 번민하다가 은둔 수행자 바를라암을 만나 혹독한 고행 끝에 성인이 됐다고 전한다. 성 요사팟은 가톨릭교회에서 매년 11월 27일을 축일로 기념하고 있다.

제이나 연구원은 "성 요사팟 이야기에서 명확하게 아시타 선인의 예언, 사문유관, 마라와 세 딸, 데바닷따의 해침, 쌍림열반 등의 사건을 찾아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우인 객원기자

교토불교회 "보시는 현금으로"

신용거래 늘어나자 반대성명

최근 일본 불교계에서 현금이 아닌 신용거래로 불전이나 보시금을 받는 제도가 도입되고 있다. 현대사회의 경제활동에 발맞춰간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대다수인 가운데, 전통적인 불교단체 '교토불교회'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해 화제다. 6월 28일 '마이니치신문' '요미우리신문' '교토신문' 등의 주요 언론들은 교토불교회의 반대성명을 일괄 보도했다.

교토부내 약 1천여 개소의 사찰들이 연합한 '교토불교회'는 28일 "불전이나 보시금 등 종교 활동과 관련된 금전이 신용거래로 오가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토불교회 이사장 아리마 라이테츠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용거래로 신도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자와 사찰의 금전적인 행동이 외부에 유출돼 종교의 자유가 통제되거나 억압될 위험성이 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또한 교토불교회 측은 성명을 통해 "불전과 보시를 신용거래로 받는 것은 보시의 원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주장했다. 교토불교회는 "신자의 신심과 마음을 담아 불전에 올리는 것이 보시의 참된 의미다. 불전과 보시금은 영리사업의 수익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테츠 스님은 "단지 편리성만을 좇아 신용거래를 사용한다면, 신자와 사찰간의 가시적인 연계가 약화된다"고 설명했다.

라이테츠 스님은 "앞으로 타종교계와도 연계해 종교적인 경제활동이 신용거래에 잠식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우리몸 막힌곳을 뻥! 뻥!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루2회 공복
혈통
맑은 물에 희석해서 마십니다
건강을 통! 하게 합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정신도 깨어납니다
010-9003-6767 / 042)535-1234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 과학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 시대에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고타마 싯다르타(석가모니)부처님의 호흡법을 발견 · 전수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 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 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호흡 선정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수료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전)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후원계좌 : 국민은행 (371101-04-120586 박성호)
제6차크라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처명선광) 검색
일행삼매 연구소(소장:처명)